

[기획] >> 4면
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기획] >> 5면
총장 선거 갈무리

[사문] >> 8면
디지털 사회 노년층 소외 문제

[학술] >> 9면
한미 정상회담 평가

제13대 총장 선거를 되돌아보며



지난 달 28일 제13대 총장으로 기호 6번 강기훈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총장 선거 과정에선 △간선제△전체학생총회 개최△복수 추천제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 되기도 했다. 모든 주체가 달려온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5면에서 계속

김주연 기자 11juyeon@hufs.ac.kr

2025 우리학교 언론인상에 안수훈, 김상연, 심인성

우리학교 언론인회는 지난달 25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외대 언론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김상연(서양어·스페인어86) 서울신문 편집국장△심인성(영어·영어88)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안수훈(사회·행정82) 연합뉴스TV 대표에게 올해의 외대 언론인상을 수여했다.

김상연 서울신문 편집국장은 지난 1996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논설위원△위싱턴 특파원△정치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라크전 파병 한국군 부대를 중군 취재했으며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현지 취재하는 등 역사의 고비마다 현장에서 기사를 타 전했다.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는 지난 1991년 언론에 입문



▲왼쪽부터 안수훈, 김상연, 심인성

해 △논설위원△미국 애틀랜타 특파원△미디어과학부장△사회담당 편집부국장△사회부장△정치부 차장 등을 거쳤다. 특히 바그다드(Baghdad) 순회 특파원으로 이라크전쟁을 중군 취재했고 쿠

바 판타나모(Guantanamo) 수용소를 취재하는 등 위험 지역 취재 보도에 앞장서 왔다.

심인성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은 지난 1995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미디어전략팀장△산업부장△전국부장△위싱턴 특파원△정책뉴스부장△정치담당 편집부국장 등을 지냈다. 또한 관훈클럽 감사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 언론단체 활동을 통해 언론 발전에도 힘써왔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특수외국어 포럼’ 개최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은 지난달 7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수외국어포럼을 개최했다.

박민영 우리학교 체코·슬로바키아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엔 △국립국제교육원과 단국대학교 등 외부기관 관계자△우리학교 교수△직원△학생 등이 참석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은구 우리학교 특교원 원장(이하 이 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학교 특교원은 현재 25개 학과에서 21개의 특수외국어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수외국어 교육은 미래 글로벌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고 전했다. 또 “이번 포럼이 특수외국어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도형 우리학교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장이 축사를 통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1부에선 유누스 엠레(Yunus Emre) 튀르키예문화원 에르

주멘트 카야(Ercument Kaya)원장과 페르예시 판니(Perjési Panni) 주한 리스트 헝가리문화원 부원장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와 국제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고나영(아시아·터키어 22)△송의호(서양어·네덜란드어 23)△유진(서양어·스칸어 22) 씨가 특교원 지원으로 참여한 해외 여름학교 프로그램의 체험 내용을 공유했다.

2부에선 △김상현 우리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교수△나르기자(Nargiza) 우리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홍석우 우리학교 우크라이나학과 교수가 신규 언어 개발사업과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과 같은 특교원의 주요 사업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마지막 3부 종합토론에선 오종진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 고도화△국제 교류 확대△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과제와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시대를 읽다. 미래를 열다 한국외대만의 혁신

HUFS의 글로벌 경쟁력에 첨단융합학문을 더해
학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https://ww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년 만에 열린 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 정족수 충족하며 성료

우리학교 전체학생총회가 지난달 20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전체학생총회는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2021년 119 전체학생총회 이후 4년 만에 소집됐다. 애초 오후 5시 개회를 목표로 했던 전체학생총회는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 비로소 정회원 중 10%인 의사정족수 86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보고되며 공식적으로 성립됐다. 나민석(사회·정외 22) 설캠 총학생회장과 송준우(상경·경제 22) 부총학생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선 먼저 제13대 총장 후보 선거 일정 및 선거 대응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총학은 지난 5월 정책 싱크 탱크(Think Tank)인 총학생회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학교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혁신요구안을 발표했다. 이후 단위별로 요구안을 추가한 학생 요구안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송부했다. 이에 후보자들은 평균 92.94%의 요구 수용률로 화답



했다. 또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학생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논의 및 결의 안건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총장 후보 선거에 대한 일반외대 학생 요구안 결의의 건과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대(對) 법인 애국외대 일반



학생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됐다. 총학은 우리학교 동원 육영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적 책무 방기△시대 역행적 총장직선제 철폐 시도와 선거 개입 시도△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인이사회의 구성과 구조를 지적했다. 표결 결과 두 결의문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학생총회에서 신서연(서양어·포르투갈어 24) 씨는 “처음엔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많은 학우분이 끝까지 한마음으로 모여준 덕분에 성사될 수 있었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사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뿌듯함과 벅찬 감정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 윤서희(자유전공 25) 씨는 “4년 만의 총장 선거인 만큼 학생총회도 4년 만에 성사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학생자치에 대해 관심이 없던 학우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의미한 모임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우리학교 AI 융합대학, 클룩(Klook)과 업무협약 체결로 실무형 AI융합인재 양성

우리학교 AI 융합대학은 지난달 20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대학원 브릭스홀에서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 창립된 클룩은 교통 및 액티비티 예약 및 글로벌 숙박 플랫폼 회사로 4년 만인 지난 2018년에 유니콘 기업* 지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학교 AI 융합대학이 보유한 언어 및 AI 연구 역량에 클룩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인공지능 기반 번역 품질을 한층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AI 번역 지시문을 정교화하고 번역 품질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현지화 및 언어 기술 관련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 과정에서 우리학교 AI 융합학부 학생들은 △인턴십△워크숍△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에 참여하며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의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AI 융복합 실무형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태엽 우리학교 AI 융합대학장은 클룩과의 산학협력에 대해 “AI 융합



대학은 언어와 지역학의 메카인 우리학교에서 짧은 시간 안에 AI 시대를 선도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했다”며 “AI 융합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여행 플

랫폼인 클룩에서 실용적인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AI 융합대학은 지난해 설캠의 Language&AI와 Social Science&AI의 2개 학부 및 글로벌캠퍼스의 Finance&AI와 AI 데이터융합학부의 2개 학부로 총 4개 학부로 출범해 △경영△경제△언어 자원△지역학 등 전문적 배경지식을 결합한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AI 융합대학은 출범 이래 매년 최우수 학생 모집에 성공해 공학적 분석과 응용 역량은 물론 세계 언어 자원의 활용 능력과 △문화△사회△인문적 소양을 겸비한 전문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최초의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우리학교 임주원 교수 연구팀, 이종접합 반도체 광전극 개발로 차세대 광전화학 전지 성능 획기적 향상

임주원 우리학교 공과대학 반도체전자공학 교수(이하 임 교수) 연구팀이 중국 동북석유대학교(Northeast Petroleum University) 후안 왕(Huan Wang) 교수팀과 이종접합 반도체 광전극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임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변환 기술로 주목받는 광전화학 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신개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임 교수팀은 몰리브덴(Molybdenum) 도핑 텅스텐(Tungsten) 산화물(Mo-WO₃)과 세륨(cerium) 산화물(CeO₂)을 결합해 S-scheme 이종접합(Heterojunction)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광전지와 정공의 분리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광전극의 주요 한계였던 전하 재결합 손실을 획기적으로 억제하고 빛을 이용한 고효율 전력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Mo-WO₃/CeO₂ S-scheme 복합체 광전극은 과산화수소(H₂O₂)를 매개로 한 신형 광전화학 전지(H₂O₂ PEC cell)에 적용돼 기존 WO₃ 기반 전극 대비 4배 이상 높은 H₂O₂ 생성 효율과 255배 향상된 전력 밀도(5.79 mW/cm²)를 달성했다. 또한 해당 전지는 57,834 mF/cm²의 초고용량 커패시턴스(Capacitance)와 12시간 동안 54% 용량 유지율을 보여 광에너지 변환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 및 전력 공급 기능을 모두 구현하는 올인원 에너지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Mo 도핑*에 따른 산소 결함

(Oxygen Vacancy) 생성과 S-scheme 내부 전기장 기반의 효율적 전하 이동 경로 덕분에 반도체의 밴드 구조 제어 통해 전자공학적 설계 개념을 광전화학 시스템에 융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반도체 소자의 전하 이동 제어와 결함공학(Defect Engineering) 개념을 에너지 변환 소자에 접목한 것으로 △연료 저장△전력 생산△태양광 발전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구현한 혁신적인 접근이다”며 “△광촉매 반응 소자△반도체 기반 수소 생산△자발전환 센서 등 향후 다양한 응용 연구로 확장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 Technology에 게재됐으며 해당 저널은 JCR** 기준 금속공학(Metallurgy & Metallurgical Engineering) 분야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최우수 학술지이다.

*Mo 도핑: 재료에 ‘몰리브데늄’(Molybdenum, 원소기호 Mo)을 소량 첨가해 전기적·물리적 특성을 조절하는 반도체·소재 분야의 도핑 방법
**JCR(Journal Citation Reports): 전 세계 학술지의 영향력과 등급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우리학교, ‘제15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

우리학교 폴란드학과는 지난달 3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5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폴란드어 전문 인재 양성과 폴-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엔 총 33명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1명의 학생이 ‘위장에서 마음으로 - 내가 사랑하는 한국·폴란드의 소울푸드’를 주제로 열띤 발표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음식이란 친근한 소재를 통해 양국 문화의 공통점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연결하고 뛰어난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를 보여줬다.

저학년 부에선 산낙지를 주제로 발표한 임재인(국가전략·폴란드 24) 씨가 고학년 부에선 폴란드식 만두 피에로기(Pierogi)와 토마토수프의 따뜻한 추억을 소개한 허수진(국가전략·폴란드 22) 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수상자에게 폴란드 교육부가 제공하는 △서머스쿨 장학금△폴란드 공공기관 인턴십 기회△6개월 어학연수 장학금 등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번 해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LOT 폴란드 항공 한국 사무소의 특별 후원으로 저학년 부 1등과 2등에겐 대사관이 고학년 부 1등과 2등에겐 LOT 폴란드 항공이



폴란드행 양복 항공권 2매를 각각 제공해 학생들의 열기를 높였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특교원이 마련한 기념품이 증정됐다. 행사엔 폴란드 현지 미디어인 Pepe TV와 Link Asia 소속 기자들이 취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폴란드어 교육과 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어를 독학 중인 중학생 김준모 씨도 어머니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회를 관람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Bartosz Wiśniewski) 주한 폴란드 대사는 “한국과 폴란드의 수교 이전인 1987년 이미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에 폴란드학과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외대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회가 폴란드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동기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폴란드학과는 국내 유일의 폴란드어 전공 학과로 지난 38년간 △문화△외교△통상△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폴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왔다. 대회의 주요 장면은 우리학교 폴란드학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수업도 공사도 한 지붕 아래... 학생들 ‘학습권 침해’ 호소

우리학교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개원)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공사가 학기 중에 강행되며 해당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교개원의 공사와 학생들의 불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교개원의 공사와 학생들의 불만

우리학교 교개원 3층에서 진행되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 1월 중엔 부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함에 따라 수업 흐름이 끊기고 교수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재학생이 느끼는 수업의 방해 정도는 상당했다. 교개원 4층에서 발표를 진행했던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발표 도중 드릴 때문에 울리는 소리가 났다”며 “소리가 시끄러워 발표 중간에 멈추고 소리가 잦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각이 예민한 편이라 불안감이 들고 이명이 들렸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실제로 자체 소음 측정 결과 공사 현장 인근 강의실에서의 소음은 순간 최대 80데시벨을 넘었다. 이는 지하철 차내 소음과 맞먹는 수치로 장시간 노출 시 청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당 공사는 특히 학기 중에 진행됐단 점에서 학생들에게 더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학교 시설 공사는 소음 문제로 인해 방학 기간에 진행된다. 학기 중 진행되는 해당 공사에 대해 진호일 시설관리팀 과장(이하 진 과장)은 “방학 기간만으론 전체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

했다. 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지연을 감안할 때 학기 중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해 강의 배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주말 공사에 대해선 “공사 기간이 증가하면 전체 사업비가 상승한다”며 “따라서 가능한 단기간에 공사를 완수하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사전 공지나 대응이 부족했던 것 또한 문제다. 해당 공사는 교수진이나 학생에게 푸시 알람 등의 수단을 활용해 별도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현장에 부착된 공사 개요 안내문 한 장이 공지의 전부였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학교 측의 공지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 측 역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C 씨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인지 물어보셨다”고 말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공사 과정과 관련해 공사 시간과 기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행정 편의상 학기 중 공사가 불가피하다면 수업이 집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주간 시간대엔 소음 유발 작업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D 씨는 이에 대해 “저녁 시간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시간에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에서도 교원사택을 신축하며 학생들의 소음 불만이 발생하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DGIST 시설운영팀은 “감리단 및 시공사와 협의해 저소음 발생 장비 사용 및 작업 시간 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공사 시간 조정에 대해 진 과장은 “소음이 큰 공정은 새벽 시간부터 앞당겨 진행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소음을 최소화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 전환 등의 대안을 통해 공사가 이뤄지는 건물에서 강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단 지적도 이어진다. 학교 측 대응과 관련해서 별도 강의실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진 과장은 “현재 우리학교가 보유한 강의실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여분 강의실 현황을 파악해 소음 피해가 심각한 강의를 우선으로 다른 강의실로 배정하는 것을 우선하되 여건이 안 되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강의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향후 학기 중 공사는 학생 측과 충분히 소통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학교 측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공사

계획 단계부터 공사 일정을 공유하고 학생에게 공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설캠 총학도 학교와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학은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개원 소음 문제와 관련해 △건설기획팀△시설관리팀△총괄지원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사후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향후 학내 공사에선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는 조치 등을 학교 측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교개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다.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향후 유사한 공사 진행 시 소음으로 인한 불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후속보도

글로벌캠퍼스의 외부인 통제 노력 속 남은 숙제는

지난 1099호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외부인 유입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학교 측은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외부인 문제 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외부인 문제 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

글캠 총학은 지난 10월 총괄지원팀과 면담을 통해 외부인 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또 지난 달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단풍철 외부인 관광객 문제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건’을 제시했다. 총학의 4대 요구안은 △교내 행사 시 외부 차량 출입 금지 △미등록 차량 출입 통제 및 주차 금지△외부인 출입 통제△통제 인원 확대 및 학생 인원 배치였다.

이에 학교 측도 해당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특히 “등록 차량 외 미등록 차량의 주차 전면 금지” 요구와 관련해 주말 동안 외부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김석중 글캠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 부장(이하 김 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총괄지원팀은 교통마비에 대비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내외부 인력 동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측은 현수막을 걸어 교내 행락객 차량 출입 금지를 안내했다. 또한 학교 측은 용인동부경찰서와 모현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외부 지원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교외에선 교통경찰 및 모현 자율방범대원이 차량을 통제했고 교내 정문엔 △총괄지원팀 및 시설관리팀 직원△ROTC 후보생△SK쉴더스(Shieldus) 경비요원이 외부인 주차를 막고 명수당 주변 질서를 관리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노력에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주말에도 출근해 차량을 통제하는 직원들을 목격했다”며 “정문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느라 고생하시는 관계자와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에도 일부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해에 해당 문제가 더욱 부각된 원인으론 관광객의 폭증으로 인한 관리 인력 부족이 지적됐다. 글캠이 SNS상에서 명소로 유명해지며 우리학교를 찾는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 총괄지원팀에 따르면 이번 해 단풍철 주말 입차 차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존 인력의 과로 문제도 발생했다. 실제로 총학이 지난달 17일에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따르면 용역 직원이 추가 업무를 지시받거나 총학 인원이 본래 업무 범위를 초과해 순찰 및 정비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총학과 학교 및 지자체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총학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료를 현재 요금인 10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괄지원팀은 “학교는 주차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광 시기 주차료 인상으로 학교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차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총학은 용인시청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나 “학교는 사유지이기

에 협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외부인으로 인한 △건물 무단 유입△반려견 동반 △폭언 및 갈등△쓰레기 무단 투기 등 파생적인 문제도 여전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해치며 건물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매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우리학교의 교통 통제 대응에 대해 “체계가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채 급하게 대처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학이 제시한 요구안과 같이 교직원과 학생 인력에 과도하게 현장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화담숲같이 시간대별로 외부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며 “허용된 차량과 인원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학교의 우려 사항인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외부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글캠처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학인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외부인 차량이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시 우리학교

시간당 요금의 2배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통제뿐 아니라 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부가적인 문제 또한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해 김 부장은 “△교양관△학생회관△후생관에 환경미화원을 각각 배치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선 학교 측과 총학 모두 이번 해를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AI 부정행위 속 무너지는 진리의 상아탑, AI와 대학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선

지난 10월 15일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AI가 도입된 지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우리학교에도 부정행위란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며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현황△AI 부정행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현황

이번 논란은 연세대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로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연세대 3학년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서 잇따라 동일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대학가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월 비대면 시험으로 이루어진 우리학교의 한 교양수업에선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글이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통해 전해졌다. 시험뿐 아니라 보고서와 같은 과제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제 및 프로젝트 등을 위한 자료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이 91.7%에 달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처음엔 많은 양의 과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AI 사용을 시작하게 됐다”며 “경쟁사회에서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계속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기 우리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학생들이 AI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해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보고서 제출 과제에서 AI를 활용해 본 적 있다는 답변이 83.3%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 B 씨는 “AI가 상용화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그 도덕성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교강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AI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이처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AI 부정행위 기준의 모호성과 평가방식의 환경을 꼽을 수 있다.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에 AI를 학습보조 도구로 사용한 것인지 혹은 부정행위를 위해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감별이 어렵단 것이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6월 조사한 결과 국내 대학들 중 AI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곳이 77.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실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국립대는 △국립한밭대학교(이하 국립한밭대)△충남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단 3곳에 그쳤다. 그러나 이마저도 단순 선언에만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전북대학교는 학생이 지켜야 할 AI 활용 원칙으로 △기술 발전에 맞춘 지속적인 학습

방법 개선△목적에 부합한 활용△윤리적 활용△자기 주도적 AI 활용△활용 결과의 정확성 검토△효과적인 AI 활용 방법 모색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학생 자유의지로 맡긴단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우리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타 대학의 AI 부정행위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또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대형강의도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우리학교를 포함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대학들 중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대형강의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우리학교 비대면 교양과목 역시 수강인원이 최대 100여 명으로 시험 관리 감독이 어렵단 지적이 제기됐다. MBC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비대면 대형강의가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이유로

불이익 또는 논문 심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결과물 표절 및 위조가 확인된 경우엔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때 부정행위가 적발됐던 중앙대학교의 경우도 교수자용 및 학습자용 가이드라인을 분리해 제시할 뿐 아니라 교수자에게 △교수자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AI 사용 가능△자유롭게 AI 사용 가능△AI 사용금지 등 총 3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해 강의계획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을 참고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만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단순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정하여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AI 가이드라인 역시 확립될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이광복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정부와 학계가 협력해 범국가적

‘AI 연구 및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 방안△AI 생성 데이터의 검증절차 및 기준 확립△AI의 연구 참여 역할 한계 명시△AI 활용 시 투명한 출처 표기 의무화를 주장했다.

단답식 및 악술형 시험문제의 비율을 늘리고 트러스트 록(Trust Lock) 기능을 도입한다면 비대면 대형강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수업방식은 비용절약과 시공간 제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던 긍정적인 점도 존재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경우 시험 관리감독이 어려워 부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트러스트 록은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으로 시험 화면과 외부 프로그램의 동시 실행을 차단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치한다

면 시험감독 인원 없이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단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기기 동시 접속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문제의 비율을 늘리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역사와 같은 인문학의 경우 서술형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단답형이나 악술형 문제 수를 늘리고 시간을 제한두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제미니(Gemini) 기준 AI가 추론모드로 답을 형성하는 데 보통 30초 내외가 걸리는데 20문제를 냈다고 가정하면 답을 추론하는 시간만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 수를 늘리고 시간을 줄인다면 AI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역사적으로 부정행위의 수단이 종이에서 전자기기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AI가 중심이 된 가운데 하루빨리 진리의 상아탑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강의실 관리 비용 절감과 강사료에 수강생 인원 할증이 붙는 것을 꼽았다. 결국 학교 측의 비용절감과 강사진의 이익증진이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현재까지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환경 속에서 답을 내기 쉬운 단답식 및 객관식의 시험유형이 더해지며 학생들에게 비대면 시험은 시험공부를 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됐다. 우리학교 재학생 C 씨는 “감독자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험 창 옆에 AI 화면을 띄워놓게 된다”며 부정행위의 현실을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기술의 발전을 이전으로 돌아킬 수 없는 상황에서 AI와 대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존하기 위해선 굳어진 기존 교육제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면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국립한밭대의 경우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출처 미표기 시 주의 조치가 내려지며 AI 결과물을 무단 제출할 경우엔 성적

기나긴 총장 선거의 마무리, 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선거에서 강기훈 후보가 당선됐다. 새로운 총장의 취임으로 향후 학교의 운영 방향과 중장기적 비전이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총장 선거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언급된 여러 문제도 함께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

다. 이번 선거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향후 우리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가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13대 총장후보선거 과정△이번 총장 선거의 아쉬운 점△앞으로의 총장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제13대 총장후보선거 과정

이번 제13대 총장후보선거에선 총 9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네 차례의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제1차 공개토론회는 지난 10월 27일 ‘총장 후보자의 대학 운영 철학과 리더십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2차 공개토론회는 지난달 3일 ‘대학 경영 및 거버넌스(송도캠퍼스 운영방안 및 법인과의 관계 등)’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3차 공개토론회는 지난달 10일 ‘△교수(연구 및 처우 등)△직원(행정 및 복지 등)△학생(교육 및 복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4차 공개토론회는 지난달 26일 1차 투표에서 상위 4위를 차지한 △기호 1번 장지호 교수△기호 2번 윤성우 교수△기호 3번 최승필 교수△기호 6번 강기훈 교수로 후보를 대상으로 자유 주제로 진행됐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은 총장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보였다. 지난 9월 22일엔 ‘꼬.꼬.총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총장 선거 이야기’ 강연을 기획해 지난 총장 선거 과정을 알아보며 학생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9월 29일엔 제13대 총장 선거가 있는 해를 맞아 ‘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제13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다’와 ‘총학생회장이 짊어주는 총장 선거 A to Z’와 같이 선거 정보 및 선거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들을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지난달 20일엔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해 △제13대 총장 후보 선거 일정 및 선거 대응 현황 보고△제13대 총장 후보 선거에 대한 일반외대 학생 요구안 결의의 건△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대 법인 애국외대 일반외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및 결의하고자 했다.

제13대 총장후보선거의 1차 투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해 2차 투표에 진출한 후보는 △기호 1번 장지호 교수(13.8%)△기호 2번 윤성우 교수(19.1%)△기호 3번 최승필 교수(11.7%)△기호 6번 강기훈 교수(28.5%)였다. 2차 투표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다수 득표자 2인인 기호 2번 윤성우 후보(23.8%)와 기호 6번 강기훈 후보(46.0%)가 마지막 3차 투표에 진출했다. 마지막 3차 투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기호 6번 강기훈 교수가 71.3%를 득표하여 우리학교 제13대 총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총장 선거의 아쉬운 점

이번 총장선거에서 드러난 아쉬움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소극적인 학생 참여가 문제로 지적됐으

며 이 과정에서 전체학생총회의 운영상 문제도 지적됐다. 1차 선거에선 투표율 60.36%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체별 투표율을 따져볼 때 △교원 97.22% △직원 96.71%△학생 58.67%로 나타났다. 2차 선거에선 투표율 55.7%에 주체별 투표율은 △교원 98.4%△직원 96.7%△학생 55.7%로 나타났다. 3차 선거에선 투표율 59.8%에 주체별 투표율은 △교원 94.9%△직원 97.5%△학생 58.2%로 나타나 전반적인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투표율뿐 아니라 지난달 개최된 전체학생총회의 성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각 캠퍼스 별로 안건을 양캠퍼스 통일한 채 진행한 전체학생총회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에선 의결결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은 지난달 20일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설캠 총학 역시 의결결족수 충족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전체학생총회는 반복적인 정족수 미충족 상황이 이어지며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에 이르러서야 성사됐다. 이에 추운 날씨에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점에서 학생들은 적잖은 불만을 표출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홍보가 이뤄지긴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들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래 대기해야 했다”며 “이에 비춰 볼 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이번과 같은 ‘자연 성사’의 선행가 생기면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다시 소집해야 할 때 처음부터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전체학생총회 성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체학생총회가 늦게 성사된 배경에 대해 나민석(사회·정외 22) 설캠 총학회장(이하 나 회장)은 학생사회가 ‘모이는 경험’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나 회장은 “모이는 연습이 돼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총학 집행위원회가 각 단과대 회의에 참여하며 학생들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전체학생총회에 먼저 참석한 학생들이 주변 학생들을 데려온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단수추천제와 복수추천제에 대한 법인 이사회와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또한 존재했다. 기존 총장 선거는 복수추천제도를 통해 1위와 2위 후보 모두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단수추천제로 변경됐다. 단수추천제는 구성원의 민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단 취지로 1위 후보만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인 이사회는 복수추천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회장은 “선거에서 1위가 해당 직을 맡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장단

점을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단수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린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나 회장은 구성원에겐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단 점도 강조했다. 대학의 3주체인 △교수△교직원△학생 역시 이번 논란에서 단수추천제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다. B 씨는 “복수추천제로 진행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임명되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이나”며 “민주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단수추천이 맞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우리학교 교수 C 씨는 “복수추천제는 재단이 최종 권한을 행사해 마음대로 결정할 여지가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선거방식에 대한 법인 이사회와의 갈등도 이번 총장선거의 아쉬움으로 제기됐다. 우리학교는 지난 1993년부터 교수직선제를 이어오다 지난 2021년부터는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총장 선출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총장 법인이 지난해 6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직선제 변경 방법을 검토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대학의 3주체인 △교수△교직원△학생 역시 법인이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학생 E 씨는 “학교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견해를 전했다. 교수 D 씨는 “오늘날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간선제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총장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총장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 참여와 법인과의 관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학생 참여는 투표율로 직결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학생들이 선거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는 전체학생총회였으나 운영상 문제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 또 이번 전체학생총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인 오바마홀 대신 야외에서 진행돼 많은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전학생들이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 공간인 본관이 보이는 잔디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장치 개선을 강조했다. 나 회장은 “서울시립대처럼 ‘서면 동의서’를 도입해 안전 설명과 표결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일부 학생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재적 성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홍보 방식에 대해선 “축제나 경품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싶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순수한 의지로 참여하는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법인과의 관계의 경우 단수 및 복수추천제와 직선제 및 간선제 두 가지로 나눠 법인과 조율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수 및 복수추천제의 경우 “단수 및 복수추천제 갈등과 관련해 총학이 바라는 대안이 있는가?”란 질문에 나 회장은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므로 우선 이번 선거는 지금 방식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선거가 마무리된 후 3주체와 법인 간의 논의 여부를 포함해 천천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방식 논란에 대해선 나 회장은 “우리학교의 총장 선출 구조가 학교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단순히 사립학교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이 주장한 간선제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간선제가 아닌 사실상 법인이 직접 총장을 뽑는 방식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민주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직선제 유지가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앞으로의 총장 선거는 사립대학의 특성뿐 아니라 우리학교의 역사적 맥락과 고유한 특수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동시에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학의 3주체와 법인이 함께 총장을 선출하는 만큼 특정 구성원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현재 선거 제도의 빈틈을 정비하고 개인 간의 감정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총장은 학교의 향후 4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건을 제시할 땐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총장선거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절차△제도△학생 참여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빨간 마음의 인도네시아

내 지난해 7월 달력은 인도네시아 하계 연수 기로 채워져 있다. 이때뿐이었다. 난 스물셋의 나이임에도 집을 5월 이상 떠난 적이 없었다. 기숙사 역시 살아본 적 없는 난 그저 집을 사랑하고 고향에서 멀어지지 않는 토박이 생활 중이었다. 12년째 이사 없이 정착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생활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정처는 없었다.

back in anger'를 합주했다. 우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와 나시고랭(Nasi Goreng)을 합쳐 '김치GORENG'이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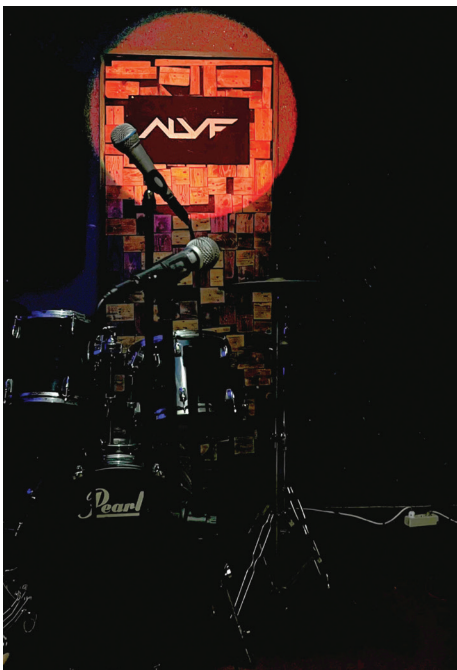
나의 인도네시아 이름도 생겼다. 내 튜터링(Tutoring) 친구는 한자의 뜻과 음을 담은 우리나라의 작명 문화가 신기하다고 했다. 내 이

그 친구에게 '샤'라는 한국어 이름을 지어줬다. 전설 문화가 유명한 인도네시아에서 달을 뜻하는 샤라는 최적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아름다움과 달빛이 오가는 호명 속 행복이 있었다.

나는 상아와의 마지막 만남에 꽃집을 방문했다. 내가 원하는 꽃다발의 구성은 다섯 송이였지만 소통의 오류로 다섯 꽃다발을 대량 구매



생존법
한로로



우리 학과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Yogyakarta)에 위치한 가자마자 대학교(Universitas Gadjah Mada)에서 열리는 방학 연수를 진행했다. 나는 그 기회를 권태롭던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오아시스로 보았고 부모님은 지쳐 있던 날 보며 인도네시아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36일 동안의 인도네시아 생활은 두렵기도 했지만 두근거렸다. 원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고 내 마음도 안정감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검은 캔버스에 지핀 붉은 노래를 들으며 캠퍼스의 밤길을 걸었다. 그것은 내 일을 견딜 수 있는 나만의 생존법이었다.

그곳에선 고독을 찾아다녔지만 행복은 함께일 때 피어났다. 펑크 밴드(Band)를 좋아하는 나는 현지 대학생 친구와 'ALVF' 합주실에서 영국 밴드 오아시스(Oasis)의 'Don't look



름 '소영(韶瑩)'은 아름답고 밝은 뜻을 가졌다고 그에게 알려주자 나는 '행복하고 아름답다'란 의미를 품은 'Fara'가 되었다. 나는 답례로

해 버렸다. 다섯 꽃다발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한 사람을 기다렸다. 우리의 약속 장소는 인도네시아의 하얏고 빨간 국기가 빼곡히 걸린 거리였다.

나의 하계 연수기도 이와 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던 하얀 캔버스에 사랑의 마음이 지나갔다. 내게 다시는 흉내 낼 수 없는 추억을 안겨준 '비밀 언덕'이 있었고 그에게 평생 새겨줄 고마운 마음을 추신한다. 내 오아시스는 너였다고.

되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이 가볼 수 있는 족자카르타(Yogyakarta). 나는 다시금 떠날 용기를 지피다가 겹따들 반복하는 20대 초반의 마지막 겨울을 견고 있다.

유소영(통번역 · 마이너 23)



한국

<언젠가, 아마도>

- 찬탄하던 곳과 작별하는 법 -



미련 없이 작별하는 것은 가능할까. 김연수 작가는 “떠나는 순간에 아쉬움이 남아선 안 된다”고 조언하며 여행을 ‘눈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토록 찬탄하던 곳과 작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그렇다면 난 아직 제대로 된 여행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 어떤 여행이든 마치고 돌아오면 가지 못한 곳과 하지 못한 것에 늘 아쉬움이 남아 사진첩을 뒤적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장소이든 관계이든 작별 인사는 언제나 아쉬운 법이다.

김연수 작가의 책 ‘언젠가, 아마도’는 작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재한 칼럼을 엮은 여행 산문집이다. 작가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색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여행하며 발견하는 감정들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다. 작가는 여행지에서 완벽히 혼자가 된 경험을 통해 ‘스트레인저(Stanger)’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한다. 여행자는 때로 어떤 사회적 연결 고리도 없는 단독자가 된다. 낯선 곳에서 완벽한 단독자가 되는 것은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해방감처럼 느껴진다. 이런 자유로움과 익명성이야말로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크게 공감하며 읽었다.

작가의 인터뷰 중 깊이 공감한 대목이 있다. 소설가는 좌절과 비관이 강력하게 스며든 사회에 맞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산문집에서도 작가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건넨다. “멀리서 볼 때 라스베이거스가 신기루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까닭은 결국 대개는 패배할 운명이라고 해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망하고 다시 꿈꾸는 일이 바로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라”란 문장은 희망을 상징하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세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단 다짐처럼 들린다. 희망의 언어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이번 호를 끝으로 난 학보를 뒤로 하고 교환학생을 떠난다. 지금 계획한 일들 중 상당수는 현지에서 이루지 못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떠나기도 전에 돌아오는 순간이 아쉬운 것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벌써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번 여정이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련 없이 그 순간과 작별하고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김연수 작가의 조언처럼 눈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도 감사히 그곳과 작별할 수 있는 여행을 경험하기를 기대해 본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국회 법사위, 'K-스틸법' · 석유화학특별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이하 법사위) 지난달 26일 미국 관세와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지난 8월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지원△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포함한다. 산업자원통상중

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조항 등은 의무 조항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특례사업 재편 지원△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사회 잘못된 수술로 고통받던 시에라리온 청년, 아산병원서 새 삶 찾다

서울아산병원이 교통사고 이후 잘못된 수술로 극심한 통증을 겪던 시에라리온 청년 존 콘테 씨(이하 콘테 씨)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퇴골 재건 수술과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콘테 씨는 지난 2022년 사고 후 현지 병원에서 대퇴골에 철심을 삽입했으나 나사가 부러지며 철심이 빠져 나와 걸을 때마다 무릎을 찌르는 통증을 겪었고 뼈도 볼지 않아 다리 길이와 보행이 악화됐다. 시에라리온엔 재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산병원에 진료가 요

청됐고 병원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모든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검사 및 격리를 거쳐 지난 지난달 3일 7시간에 걸친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협진 수술이 진행됐으며 △뼈 고정△뼈이식△피부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콘테 씨는 재활을 마치고 보행 능력을 회복해 퇴원했다.

경제 홀플러스 매각 유찰...정부·채권단 구조조정 vs 부분 매각 '장기전' 돌입

홀플러스 매각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며 회생절차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홀플러스는 △대규모 미납 세금△2조 원대 회생채권△4년 연속 적자 등 재무 부담이 커 인수 매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적으로 회생 절차는 다음 해 9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홀플러스에 대해 두 가지 전망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정부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다. 이는 MBK 지분 소각 및 채권 일부 탕감

후 지분 전환으로 정책금융이나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SI)가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이는 폐점 또는 해고보단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알짜 자산과 점포만 따로 파는 부분 매각이다. 이는 원매자 유지가 쉽지만 점포 폐점 및 대량 해고 등 구성원 피해가 클 수 있다. 대형마트 2위 기업의 해체 문제는 △노동계△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다.

국제 대만 유사시 발언 후폭풍...중·일 갈등 격화하며 외교 긴장 장기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군함으로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개입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역대 총리들이 피했던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은 즉각 “중대한 도발”이라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일본 여행 자제령△일본 영화 상영 연기△항공편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중국 외교 및 군 당국자는 일본이 개입할 경우 “참혹한 대가”를 경고

하기도 했다. 일본은 중국 측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하며 대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오사카 총영사의 ‘참수’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자국민 안전을 요청했다.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5년 연속 저금리 동결에도 줄지 않는 부담... 흔들리고 있는 청년 경제

취업난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이어지며 학자금대출은 청년 세대가 사회로 나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가 5년째 동결되고 각종 이자 지원책이 마련됐으나 상환 부담은 줄지 않는다. 빚을 먼저 갚기 위해 사회 진출을 미루는 현실은 청년층의 신용과 경제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이

어진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재정 관리 문제로 치부해 온 학자금대출이 청년층 전체의 구조적 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일자리 확충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학자금대출의 현황과 원인 △학자금대출 부담의 사회적 영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학자금대출 문제의 현황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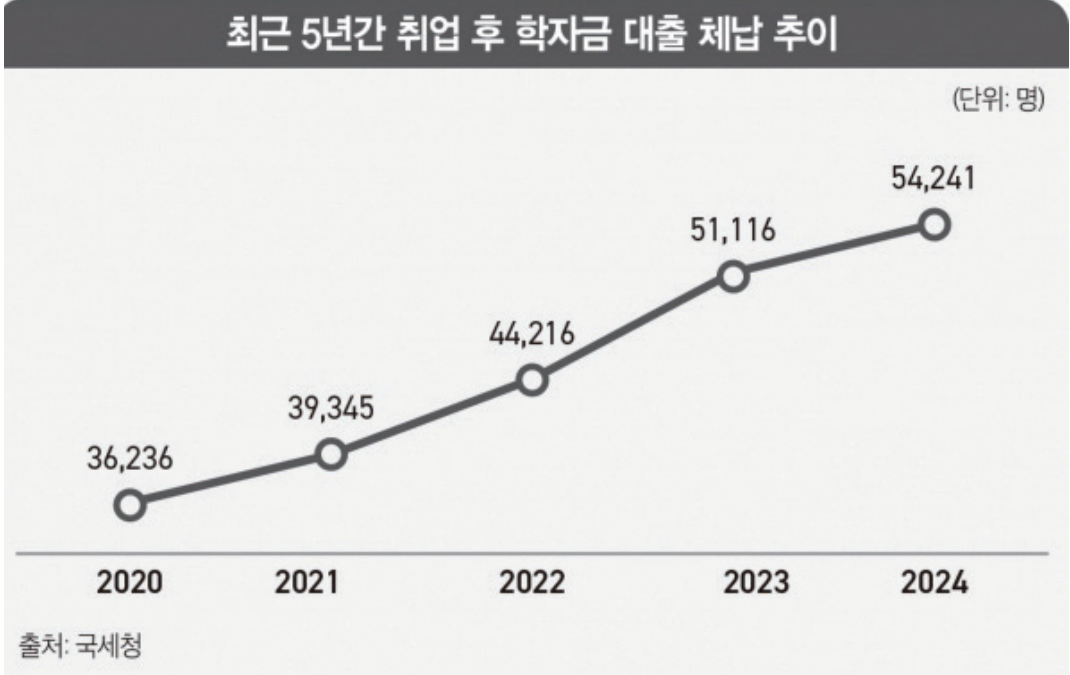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심화하며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금리가 동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자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상환 부담은 줄지 않았다. 실제로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청년은 지난 2020년 3만 6천 명에서 지난해 5만 4천 명으로 증가했고 전반적인 대출 규모 역시 증가했다. 이번 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액은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립대 학생의 대출 이용률이 15.4%로 국공립대 6.7%의 두 배를 넘어섰다.

체납 현황도 심각하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은 전년 대비 11.95% 증가한 740억 원이며 납부액 대비 체납액 비중은 17.3%로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상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소득 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실질 체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환 회피가 아닌 기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비율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에도 상환 자체가 어렵다”며 “취업이 늦어지면 이자가 불기 때문에 적금이라도 깨야 하나 걱정된다”고 전했다.

특별상환유예 신청자가 지난 2020년 6,731명에서 지난해 1만 1,753명으로 약 75% 증가한 것 역시 같은 흐름에 있다. 이는 △실업△육아휴직△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최대 2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찾는 청년이 늘어난 현실 자체가 청년층의 취약한 경제 여건을 방증한다.

고용 환경 또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린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단기직에 머무르게에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청년층 계약직 비율은 43.1%로 1년 사이 12%p 증가했고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는 약 18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80%를 생활비로 지출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주거를 비롯한 고정 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조에선 상환 여력이 쉽게 마련되지 않아 연체와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일상 금융서비스 이용△전세대출△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준다.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청년 연체자의 40%가 학자금대출 보유자로 확인되며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 연체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학자금대출 부담이 불러온 나비효과

학자금대출은 개인 부채를 넘어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제약하며 사회적 과장을 키우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회 진출의 전반적인 지연이다. 부채를 안고 있는 청년일수록 취업 시기를 앞당기기보단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기다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첫 직장 선택 자체가 향후 상환 부담을 좌우한다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 규모가 클수록 청년들이 소득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은 직업 선택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력 전환의 기회도 제한한다.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청년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기 보단 상환 가능한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직업을 결정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대학원 진학△전공 변경△해외 연수 등 장기적인 투자 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진다.

부채가 개인의 생활을 넘어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단 점도 문제다. 일부 청년들은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다고 말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남우현(사회·정의 22) 씨는 “주변 친구 중에도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며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경제적 약자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심리적 압박은 일상적 △사회활동△소비△직장 내 관계 유지에도 영향을 주며 정신건강에도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회 격차를 확대해 사

회적 양극화로 이어진단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학생은 부채 없이 진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학업 단계부터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졸업 이후에도 상환 부담에 얽매인다. 이로 인해 △결혼 및 출산 계획△주거 이동성△취업 안정성 등 생애 전반의 선택지가 차등화되며 결국 동일 세대 내부에서도 출발선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결국 학자금대출이 남긴 나비효과는 단순한 부채 증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청년의 경제 활동 안정성뿐 아니라 사회 진입 경로와 미래 설계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의 기회 구조 전반에 깊이 얽혀 있는 문제며 지금의 부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청년층의 이동성과 혁신성이 장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는 우리나라의 청년층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그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은 해마다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고 청년층의 취업 안정성은 학자금대출 제도로 인한 파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 끊어진다’ 토론회에서 이학영 부의장은 “청년 부채는 국가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자금대출 문제는 청년 세대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징후”라고 밝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년 일자리 안정성 확보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비정규직 비율 증가△초기 급여 수준 정체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는 학자금 상환 능력 악화로 직결된다. 현재 시행 중인 상환유예 제도는 한정된 사유에만 적용되기

에 실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시기엔 유예 제도가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유예 기간 중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청년 금융 역량 강화 역시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대출 구조 및 상환 방식에 대한 이해도와 연체 위험 간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날 많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은 금융 지식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기관△대학△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기초 금융 교육△신용 점수 관리법△장기 자산 전략 등을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 불이익 완화 장치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제도는 단기간의 연체만으로도 신용 등급이 크게 하락해 사회초년생의 금융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발생하는 시기△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첫 직장을 찾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연체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자동으로 점진적 신용 회복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청년층에 한해 연체 등급 하락 폭을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경제 활동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자금대출 문제는 다양한 영역이 중첩된 복합적 현상이다. 따라서 단편적 조치만으론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 △대출 제도 현실화△등록금 구조 개편△신용 회복 장치 마련△청년층 일자리 안정성 강화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시점 필요한 것은 개별 부채를 줄이는 차원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청년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다.

디지털 사회가 만든 세대간 양극화... 노년층은 어떻게?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기술 혁신과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했고 공공서비스부터 △교통△금융△쇼핑 등 민간 서비스까지 연달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며 현대인의 일상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도 함께 대두됐다. 젊은 세대에 비해 첨단 기술 활용 능

력이 낮은 일부 노년 세대는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조차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매가 일상화되며 노년층이 각종 문화생활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 소외 현상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 현황△디지털 사회가 만든 문제△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디지털 사회 현황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는 일상생활을 대면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전은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야기했다. 기술이 발달하며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많은 일상 활동이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 2011년 38%에서 2023년 95%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는 일상생활의 기본 도구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정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모바일 운전면허증△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며 행정 절차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 국가 운영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 부문 역시 변화가 뚜렷하다. △식당△영화관△카페 등 일상 공간에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되며 대면 주문은 점차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도 무인 주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며 이 흐름에 합류했다. 동시에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 형태가 재편됐고 △문화시설△백화점△서점 등 오프라인 업종까지 모바일 앱 운영을 강화하며 디지털 소비 환경이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문화생활 영역에서도 노년층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일례로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입장권 온라인 구매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온라인 예매 방식이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예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원하는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KBS의 인터뷰에 따르면 69세 백 씨는 “예전처럼 현장 판매를 했다면 아침 일찍 와 줄을 서서라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조차 없어 표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디지털 사회가 만든 문제

이처럼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은 △민간 서비스△소비 형태△정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첨단 기술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노년층에게 소외를 초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접근성 제약 문제를 초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 2023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활용 능력 지수는 10·20대가 100점 기준 평균 90점대를 기록한 반면 60대는 57.3점 그리고 70대 이상은 28.9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사용 능력 항목에서 70대 이상은 17점대에 그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술 기반 서비스 이용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키오스크의 △낮은 화면 대비△복잡한 메뉴 구성△작은 글씨 등은 시력과 조작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큰 장벽이 된다. 실제로 아시아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70대 이 씨는 “병원 예약을 위해 키오스크 앞에서 5분 넘게 헤맸다”며 “결국 직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 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사실상 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고령층이 필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오히려 불편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 및 금융 서비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세금 납부△은행 거래△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기존에 창구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모바일 앱 및 무인 단말기로 전환되며 해당 기술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기본적인 생활 업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정보 격차다. 앞서 언급했듯 상당수의 노년층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정보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

공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구조적으로 가격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영화관 예매 및 의류 쇼핑물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년층은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구직 활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령화가 심화되며 노년층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제 구직 환경은 오히려 노인들에게 더 높은 장벽을 만든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및 단순노동 직종조차 채용 공고가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부족한 노년층은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며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가 곧 경제적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로 유통되는 만큼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은 필연적으로 최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로 종이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정보 전달 매체는 그 지위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KBS 보도에 따르면 국내 종이신문 산업의 전체 광고 수입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신문 산업 종사자 수 역시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및 시사 정보 또한 SNS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X(구 트위터)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황을 발표해 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역시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SNS를 이용해 공약을 홍보하는 등 공적 정보 전달의 무게중심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노년층의 SNS 이용률은 여전히 낮다. 페이스북 기준 국내 사용자 연령대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상당수 노년층은 정치·사회 정보를 제한된 방식으로 접하게 되며 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노년층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지적된다. 무엇보다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마트폰 어플 설치 고객을 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우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노인들의 재사회화가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기기 접근성 부족과 경제적 부담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단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기업은 각종 전자기기에 대한 판매 전략 수립과 더불어 노년층의 이해 수준에 맞춘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년층에게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한 취업 연계형 과정까지 마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지원했다. K뉴스통신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 씨는 “직접 일해보니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사회와 다시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는 주변 사람에게도 디지털 기술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시대에서의 소외를 완

화할 뿐 아니라 재취업 등 경제적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개발 시부터 노년층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설계하는 것도 유의미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한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시범 적용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 웹을 고령자용으로 개선하여 접근성 기준을 시험 적용한 사례다. 이 사업은 △메인 화면 구성△명도 대비△세부 화면 구조△서체 크기△용어 사용 등을 고령층 중심으로 조정해 디지털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웹 개선 과정에서 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고 실제 사용자층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노년층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학습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환경 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다. 일부 유럽 국가에선 지역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네덜란드에선 지역 모임 및 동아리가 연계돼 노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지속적 학습 플랫폼 이른바 ‘시니어 웹(Senior Web)’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구조 덕분에 참여 지속성과 지역 내 확산력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 역시 수천 개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지역 파트너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헬스와 생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가이드와 증거 기반 개입 모델을 적용하며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노년층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

당장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그 충격을 최소화해 노년층의 디지털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하다. 즉 장기적으론 디지털 중심의 정보 창구로 통합되지만 단기적으론 노년층이 이용하는 아날로그 매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멈춰선 안 된단 것이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거나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 종이신문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지역신문을 “민주주의의 필수재”로 규정했다. 또한 “읽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재조명했다. 이처럼 여전히 종이신문 등 전통적 정보 매체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세대가 존재하는 만큼 정보 제공 방식이 디지털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 결국 다양한 세대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와 전통 매체의 공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정보격차 해소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가 맞이한 새 국면과 향후 전략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우리나라 대통령(이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관세 문제△군사 분야 협력 등 다방면에

서 긴밀한 공조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과 동맹의 흐름을 확인한 자리였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이 재욱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이재욱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Q1.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사안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선 관세 및 통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자동차 관세가 15% 수준으로 결정되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해외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 속 관세 리스크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관세 협상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관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와 같이 미국과 거래 중인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느끼던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등이 제시되고 이를 10년의 장기 분산 투자 구조로 조정함으로써 외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 해방의 날'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가 이번 회담에서 잘 전달됐고 미국 관세 리스크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유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안보적 측면에선 우리나라의 안보 자율성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논의되며 기존의 디젤 추진 잠수함 체제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다만 이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던 우려도 공존합니다. 국군과 주한미군이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전략적 유연자산으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 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안보적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2.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내에선 대체로 긍정적 평가 여론이 우세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외신 보도에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기조 속에서 선방했던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비교했을 때 당장 많은 투자를 하긴 어렵지만 그것을 분산 투자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렛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만들어냈던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며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자산 배치 같은 경우에도 안보 협력이 강화됐단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은 협상을 이뤄냈지만 정책의 세부적인 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경제 및 안보 투자 정책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태지만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한미 양측 또는 제3국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이나 예산 등은 세부 합의가 중요하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3.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사안 중 주목해야 할 부분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핵 처리 기술 접근과 작전 지속능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등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만한 전략적 자산이 부족했던 상황이기 에 미국 해군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SLBM 억제에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탐지 및 회피 능력 강화란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큼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미 동맹이 재래식 방어를 넘어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외교적 성과는 무엇인가 요?

첫째로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 통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고율 관세의 우려 속에서 15% 수준으로 상호관세가 조정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요 산업의 관세 부담이 줄어 수출 기업의 안정성과 해외 투



▲한미정상회담 현장 (사진 출처: 우리나라 대통령실)

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로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가 본격화되며 해양 안보 능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조선업 협력을 통해 'K-조선'의 위상을 높였고 국제적 신뢰도 또한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진전으로 리튬이나 희토류 등의 전략 자원 공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전략 자원은 AI 관련 분야에 활용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양국의 AI 관련 분야의 협력이 실무적 진전 단계로 나아갔단 점도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Q5.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기존의 한미 공조 체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경제와 기술 안보를 포괄하는 복합 동맹으로 발전했던 점이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주로 북핵 억제와 중국 견제 등 군사와 안보 중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공급망△기술 안보△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적 자산도 논의되며 동맹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습니다. 물론 철저한 주고받기는 존재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기존 가치 동맹에서 경제 기술 측면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Q6.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국내 산업정책 또는 국방정책과 같은 국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전망인가요?

국방정책에선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하며 전력 증강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이 논해지는 가운데 동북아를 중심으로도 여러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전략적 자산을 늘려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공감대를 샀단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답보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은 △교육△복지△예산 등 다른 분야 예산 압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정부의 재정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입니다.



산업정책에선 관세 협상 결과로 조선업 등 특정 분야에 관련된 기업에겐 유리하겠지만 다른 산업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미국 투자가 늘어나고 AI의 영향으로 국내 △고용△설비△인력 등의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에 해외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 기반 유지 간 균형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Q7.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 협력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전망인가요?

지난 10년간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부담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냉전 이후 약 30년간 우리나라가 지탱해왔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이른바 안미경중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관세 및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며 기존의 자유무역체제(WTO)가 약화돼 우리나라는 안미경중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 질서와 해양협력 체제에 더 깊게 편입될 가능성이 큼니다. 중국이 그에 대해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 산업△조선 △AI 관련 반도체 등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해 간다면 양국 간의 상호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Q7-1.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

된 관세 협상 세부 논의가 실제 교역 구조나 공급망 재편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기업들은 생산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져 현지 공장 생산 확대를 급하게 추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동일한 15% 수준으로 관세가 확정되며 기업들은 생산 설비 이동의 압박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 물량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 등과 경쟁 중인 상황에서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AI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국내 기업이 기본 경쟁력을 유지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 유의미합니다. 다만 회담에서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국내 첨단 제조업의 미국 쏠림 현상과 국내 AI 분야 등의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돼 앞으로 이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Q8.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향후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근 북미회담 성사가 결렬되는 등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최근 러시아 및 중국과의 밀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나 대북정책에 즉각적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등 강력한 억제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북정책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에 대한 의지로 북한과의 대화에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에 동조해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9.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국 등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국가는 중국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과 맞닿는 서해가 포함되는 문제며 △공급망△관세△AI 기술 협력 강화 등도 모두 중국이 예민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기존의 안미경중 기조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더 밀착하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선택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 중일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일본 역시 유사한 전략자산의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중심의 경제와 안보 측면의 긴장감을 높이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지형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풀어야 할 정치 및 경제적 과제가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TSMC: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내 머릿속은 카오스

우린 끊임없이 변화하는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가치관△기술△나아갈 방향조차 예측할 수 없다. 카오스(Chaos)는 천지 창조 이전의 무질서한 공간을 뜻한다. 블랙홀과 같이 공허하면서도 무한한 이 혼돈의 공간은 여러 생각들로 가득한 내 머릿속과 닮아있다. 난 늘 혼돈 속에서 얽히고설킨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불안해지고 주변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단 압박도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 내 못난 모습을 세심하다고 말해 준 순간을 잊지 못한다.

학보에 지원한 이유는 순전히 글을 쓰고 싶어서였다. 말보다 글이 편한 나에게 있어 순수 '내 글'을 남기고 싶단 소망이었다. 내가 쓴 글이 신문에 실려 발자취로서 학교에 남는단 사실이 설렘을 주었다. 밤을 새워 작성해 간 소중한 제안서들이 채택되고 완성된 기사가 학교 곳곳에 배치된 모습을 보면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뭉뚱함이 올라온다.

처음 학보 활동을 시작했을 땐 기사의 카테고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방학에도 학교에서 교육을 들어야 했고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회의 및 조판으로 인해 한 달간 준비한 시간표에서 듣고 싶던 수업까지 포기해야 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한 단 압박 속에서 혼란스러운 여름을 보냈다. 민폐를 끼쳐 질책받고 싶지 않단 압박으로 방중교육 교재를 꾸준히 정독하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애썼고 차츰 여러 기사를 작성해 보며 어느 순간 학보의 패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함께 저녁과 야식을 먹으며 동료 기자들과 쌓아온 애정과 솟아난 동지애 역시 큰 힘이 됐다.

첫 기사였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회 기사는 적정 분량의 두 배 가까이를 준비해 부장 기자단을 고생시켰다. 그 뒤로도 늘 분량을 넘기기 일쑤였지만 침착과 수정을 반복하며 중요도를 구분하는 법을 천천히 익혀가고 있다. 학교 기관 및 교수님께 취재를 요청해야 했던 상황은 말하기에 재능이 없는 나에게 거대한 시련이었지만 무사히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완성했을 땐 또 하나의 한계를 극복한 듯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싫단 압박으로 늘 불안한 동시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믿음도 생겼다. 학보 사이트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내 기사와 다른 기자들의 글을 읽고 학보가 걸어온 흐름을 익히는 일도 어느새 습관이 됐다. 기사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메모장에 적어두는 버릇도 생겼다. 목록에 완료 표시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지만 떠오르는 생각이 멈추는 날은 없을 것이기에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사를 통해 학보 속 나만의 작은 공간을 정성스럽게 가꿔가고 싶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내 머릿속은 여전히 카오스다. 그러나 이 혼돈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내재한 창조와 잠재력의 공간이라고 믿는다. 내 성장의 걸음들이 내 안의 카오스 속에서 무한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어느덧 이번 해의 마지막 신문까지 달려왔다. 1111호의 뒷담 사설을 맡으며 한 해의 끝을 맞이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싱숭생숭하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듯 외대학보 역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백채린 기자

[책 '닐스 비크의 마지막 하루'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느린 주마등

프로데 그뤼텐(Frode Grytten)의 장편소설 '닐스 비크(Nils Vik)'의 마지막 하루'는 한 남자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하루를 그린 이야기다. 주인공 닐스 비크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나서도 초연하게 자신의 일상 루틴(Routine)을 반복한다. "마지막 하루라고 다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느 때처럼 매일 승객들을 실었던 페리(Ferry)를 운행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항해에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손님들 등 자신이 추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배에 태운다.

제목에 있는 구절 '마지막 하루'처럼 이 책은 닐스 비크가 인물 하나하나를 태우며 그 인물과의 관계를 그려내는 일화를 담고있다. 닐스 비크는 아내 마르타(Marta)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개 루나(Luna)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였으며 학대 당하던 소년 욘(Jon)을 구해줬다. 이는 모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준다. 닐스 비크가 만난 가족과 승객은 모두 과거의 인연을 넘어 그가 살아오며 택한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내가 이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화는 닐스 비크가 구해주고 키웠던 개 루나와의 대화이다. 사람대 사람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에 가장 진솔하다고 느꼈다.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돌아보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시간이었다"란 구절처럼 닐스 비크는 죽음을 시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그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더욱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닐스 비크는 죽음을 비극적으로 과장하거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 끝까지 일상을 지키며 페리를 운전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 닐스 비크가 살아온 꾸준함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불명확한 것이다.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했던 여정은 이미 죽은 자들을 만나며 주인공이 이미 죽은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항해는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가치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닐스 비크에게 죽음이란 살아왔던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며 회고록이다.

삶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한정된 시간에 있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기에 이 책은 의미를 갖는다. 닐스 비크는 지나는 시간을 미워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하루에도 일상을 끝까지 지킨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 또한 닐스 비크처럼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만큼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조금하나 두려움 없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비긴 어게인'을 보고]

누군가의 귓가에서 다시 자라나는 용기

영화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은 영화 '원스(Once)'의 감독 존 카니(John Carney)가 연출한 음악 드라마 작품으로 명문 음반사와 계약한 연인에게 배신당한 싱어송라이터 그레타(Greta)의 상처와 현실 앞에서 좌절한 음악 프로듀서 댄(Dan)의 만남을 그린다. 영화는 뉴욕의 골목골목을 배경 삼아 순수한 음악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함께 앨범을 만들며 치유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명문대 음반사와의 계약을 꿈꾸며 뉴욕에 온 싱어송라이터 그레타는 오랜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인 데이브(Dave)와 함께 새로운 꿈을 시작한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스타가 돼가는 데이브의 음악은 점차 상업적 음악으로 변한다. 결국 데이브는 그레타의 음악이 더이상 필요 없다며 다른 여인의 품으로 떠난다. 그레타는 자신의 전부였던 △공동의 음악△사랑△함께한 꿈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날 밤 뉴욕의 한 바에서 술과 상처 속에 부르던 그레타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다. 한때 천재 프로듀서였지만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되고△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있으며△사춘기 딸과도 소원해진 댄이다. 그는 그레타의 노래에서 세공되지 않은 원석 같은 빛을 발견한다. 그 빛은 자신도 음악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순수함이었다. 댄은 현실의 침묵을 깨고 그레타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다.

처음에 주저하던 그레타는 댄의 진심 어린 설득에 이내 응한다. 하지만 둘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돈△대형 음반사의 지원△정식 스튜디오 없이 작업이 진행됐지만 댄과 그레타는 뉴

욕 전역을 스튜디오 삼기로 결정한다. △건물 옥상△고가도로 아래△지하철 역△허름한 골목과 같이 뉴욕 곳곳에서 그들은 거리 뮤지션들을 불러 모아 순수한 열정 하나로 음악을 만들어간다. 때론 경찰에 쫓기고 때론 주민들에게 방해받으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순수했고 그것이 가장 진정한 음악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진정한 묘미는 상처받은 두 인물이 서로를 통해 다시 일어난다는 데 있다. 그레타는 댄과의 작업 속에서 데이브의 배신이 자신의 음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반대로 댄은 그레타와의 협력 속에서 상실했던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족과의 관계를 되찾는다. 댄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그레타의 곡을 연주하며 화해의 시간을 가지고 전 아내와도 공유할 추억이 생긴다. 영화는 상처란 영원하지 않으며 때로 옆에 있어줄 누군가의 음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하다. 세상이 상업성을 요구하고 성공을 정의할 때도 누군가는 순수한 음악을 지키려 한다. 인기를 포기하고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두 사람은 뉴욕의 거리에서 그것을 해낸다. 영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하는가? 누가 우리를 평가하는가?'라고 묻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1달러로 앨범을 유통하는 순간 하나의 이어폰으로 나눠 들던 그들의 선택이 윤택함이 증명된다. 상처 위에 피어난 노래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다.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1110호 학보를 읽고

외대학보와 함께 쌓여가는 우리학교의 내일

이혜인 (중국 · 중외통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번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맘때쯤이면 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기에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져 아쉬움도 그만큼 커지는 듯하다. 이번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마주한 이번 호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먼저 2면에선 우리학교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8명의 합격자를 5급 공채 시험에선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더해 두 시험의 수석 모두 우리학교에서 배출됐다. 특히 외교관 시험에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석을 배출하며 '국가 전략 인재 사관학교'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증명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언론고시반 및 임용고시반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수험 생활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더 넓은 분야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주길 기대한다.

9면에선 솜폼(Short-Form)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함과 동시에 솜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배경음악△영상△자막 등 모든 정보를 압축해 제공하는 솜폼에 중독된 사용자는 점차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는 뇌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적응하게 만든다. 이제 솜폼 중독은 자

율 규제에만 맡겨두기엔 심각한 문제가 됐다. 국내에선 솜폼 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 교육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어와 코딩(Coding) 등을 필수 교양으로 배우듯 솜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12면에선 급증하는 청년 우울증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 위기이다. 청년 우울증의 경우 취업난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학우들 역시 청년 우울증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학교는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힘든 순간 쉽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외에도 1110호는 4면부터 8면까지 특별기획을 구성해 9명의 총장 후보 인터뷰를 기재했다. 제13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12%이다. 지난 제12대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인 5%에서 확대됐다. 비록 큰 비율은 아닐지라도 지난 총장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비율이다. 외대학보가 앞으로도 학내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방철한 분석과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나침반이 되어주길 부탁한다.

1110호 학보를 읽고

42.195

이번 해도 벌써 한 달이면 끝난다. 한 해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캠퍼스 안팎에선 우리가 돌아보고 짚어야 할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외대학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할 곳을 꾸준히 조명하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110호에선 △우리학교 신입생 선발의 문제점△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선거△솜폼(Short-Form) 이용의 문제점△청년층 우울증 등을 다루고 있다.

3면에선 우리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드러난 출판사의 격차를 짚었다. 수시 합격생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표가 이뤄져 SW(Software)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시 추가 합격생은 늦은 합격 통보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가속사 신형 등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겪고 있다. 동일한 신입생임에도 합격 시점에 따라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기간의 차이가 아닌 △교류 기회△학교 적응△학습권이 갈리는 구조적 문제다. 신입생들의 합격 발표가 이어질 시기인 만큼 △사전 프로그램 운영 개선△제도적 보완△추가 합격생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식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4면에서 8면에 걸친 특별기획 면에선 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9명의 후보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해당 인터뷰에선 대학의 미래를 어디에 뒀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접근이 드러났다. 다양한 방향이 제안된 만큼 어떤 가치를 중시에 두고 향후 4년을 열어가자는 인터뷰의 본질적 질문이라고 느껴진다. 이번 후보자들의 공약은 공허한 약속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3주체 모두에게 유의미한 선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9면에선 솜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솜폼은 빠른 정보 소비의 장점이 있지만 자극적 소비에 익숙해 질수록 학습과 사고의 깊이는 얕아진다. 실제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이 긴 글 읽기 어려움과 과제 집중력 하락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이는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콘텐츠 소비 습관을 넘어 사고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한 솜폼 이용을 위해선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를 하거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2면에선 청년층 우울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적 고민으로만 볼 수 없을 만큼 삶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다. 상담센터 대기만 수개월에 이르는 현실은 도움을 원하는 청년들이 제때 지원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쟁△고립△불안 등이 누적되는 환경 속에서 극단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상담 체계와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긴 여정의 한 구간에서 있다.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때론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그려보는 일은 생각보다 막막하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변화는 종종 42km보다 마지막 195m에서 걸린다.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이 포기과 완주의 경계가 되듯 변화 또한 느리게 다가오더라도 결국 축적된 걸음 위에서 완성된다. 항상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학내의 사람들을 비추은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커튼콜

작년 이맘때쯤 외대학보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내 외대학보 활동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번 호가 내 임기의 마지막 신문인 만큼 애정이 많이 간다. 종강호인 1111호에선 다양한 학내 사안과 사회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2면 대학보도에선 4년만에 개최된 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전체학생총회에선 865명의 학생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전체학생총회에선 △선거 일정 및 선거 대응 현황 보고△우리학교 제13대 총장 후보 선거에 대한 일반외대 학생 요구안 결의의 건 및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대(對) 법인 애국외대 일반학생 결의문 채택의 건 상정이 이뤄졌다. 추운 날씨에 많은 학생이 모여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을 보인 만큼 학생의 의견이 활발히 반영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

4면에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0월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AI 부정행위와 더불어 대학가 내에 동일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진정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는 △가이드라인 마련△트러스트 록(Trust Lock) 기능 도입△시험문제 비율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면에선 디지털 사회에서 노년층이 겪는 어려움을 조명했다. 현대의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들은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 사용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청년층과 달리 정보 사용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실정이다. 현대 사회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재사회화 제도 및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내가 뮤지컬을 볼 때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는 커튼콜이다. 무대를 마친 배우들이 다시 무대 위에 올라와 극의 결말과 상관없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관객에게 인사한다. 서로 다른 서사를 지닌 인물들이 그 순간만큼은 같은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지나온 시간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다. 외대학보에서 보내온 시간도 나에겐 그런 커튼콜과 같다. 1학년 여름 학보사실 문을 두드리던 그 순간부터 약 20편의 기사를 남기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무대는 분명 벅차고 소중했다. 이제 나는 이 무대에서 내려가지만 다음 장을 써 내려갈 기자들이 무대를 계속할 것이다. △함께 외대학보 활동의 막을 내리는 이들에겐 수고했던 인사를△이 무대를 이어받을 기자들에겐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그리고 이 여정에 머물러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기자들의 한마디
종강호를 마무리하며...



이승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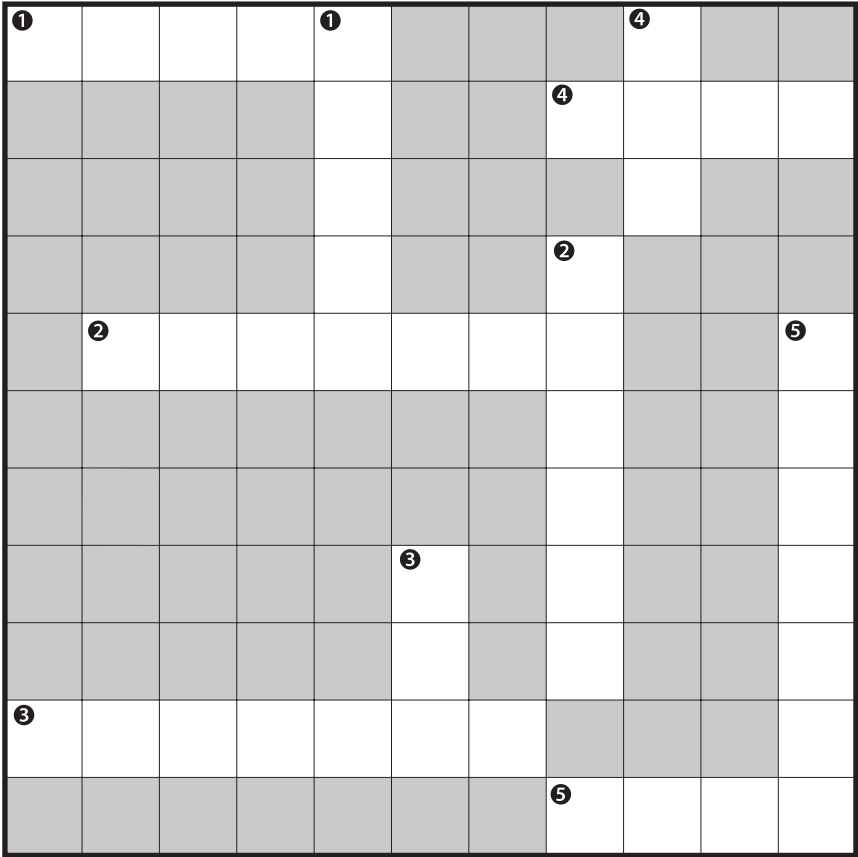
윤고은: 마감 끝! 이제부터 독자로서 애독하겠습니다!

한영빈: 외대학보 2070년까지 영원히 이어지기를!!

김민서: 드디어 끝났다X 남은 분들은 파이팅 하십쇼!ㅎㅎ

이나경: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십자말풀이



- 가로**
- 1. '영화 〇〇〇〇'은 영화 '원스(Once)'의 감독 존 카니(John Carney)가 연출한 음악 드라마 작품이다. (10면 참조)
 - 2. 삼성전자는 지난 7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 〇〇〇 〇〇〇를 운영했다. (8면 참조)
 - 3.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지난달 7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특수〇〇〇〇〇〇〇〇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수외국어 포럼을 개최했다. (1면 참조)
 - 4. 우리학교의 대표 언론으로 1955년 창간 이후 우리학교의 역사를 기록해 온 기관이다. (1면 상단 참조)
 - 5. 폴란드의 3박자 민속춤. (2면 참조)
- 세로**
- 1. 세계에서 14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며 대표 음식으로는 나시고랭이 있다. (6면 참조)
 - 2.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우리나라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간 〇〇〇〇〇이 진행됐다. (9면 참조)
 - 3. 우리나라에 〇〇〇 잠수함 도입이 논의되며 기존의 디젤 추진 잠수함 체제에서 진전을 이뤘다. (9면 참조)
 - 4. 〇〇〇으로 개설되는 대형강의가 시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거론된다. (4면 참조)
 - 5. 소련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 한 정책 (12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네모의 꿈

나는 네모다. 내가 가진 모난 구석은 가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내가 가진 역량을 필요한 곳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네모난 내가 가진 목표. 그것이 바로 네모의 꿈이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지내고 이후 2년간 학보사에서 일하며 편집장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무엇보다 쉬운 일이 없었지만 어찌됐든 시간은 흘러갔고 돌이켜보니 어느새 길의 끝에 와있다. 처음 정기자가 됐을 때 스스로 필력이 부족하단 점을 인지했기에 처음부터 다시 쌓는단 마음으로 펜을 잡았고 시간이 흐르니 그 실력을 인정받아 편집장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이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거웠다. △수많은 인터뷰△작업물 분배△각종 재정 문제 처리△가장 힘들었던 총장 선거 취재까지. 돌이켜보면 이번 학기만큼 바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느냐 물어본다면 나는 나를 믿고 함께 작업을 진행한 우리 훌륭한 기자들 덕분이었다고 얘기하고 싶다.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글에 가감없이 피드백을 주는 관계. 이런 선순환적 고리가 이번 해 외대학보의 성공에 큰 도움을 준 것이라 확신한다.

다만 자성(自省)하자면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의 의중을 살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말로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개인은 반드시 오판을 한다. 그렇기에 주변인들의 발언을 잘 수용하고 자신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는 특히 단체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당장 격주 단위로 다가오는 마감과 조판을 해내야 했기에 점점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었고 어쩌면 조금은 독단적으로 행동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이끌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일을 찾아주는 것△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리더의 자질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는 일이다. 리더의 자리에 오래있었고 나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함에도 이는 여전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최선의 결과가 도출됐을 때 리더는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번 학기가 특히 나에게 그러했고 이 일련의 경험들이 다가올 나의 도전에 큰 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앞으로의 외대학보가 어느 길로 갈지는 모르겠다.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전통 지면 매체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오래 그러하듯 언젠가는 모종의 위기로 힘든 시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있을 그 암흑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진심을 다해 노력하며 남겨둔 발자취가 등불이 되어주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준 모든 동료 기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학보에서의 마지막 글에 마침표를 찍는다. 앞으로도 학보의 명맥을 이어나갈 모든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발칸의 목소리로 강단과 방송을 넘나드는

김철민 교수를 만나다

김철민 우리학교(동유럽·유고어과 88) 교수는 현재 △대중 강연자△방송인△우리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이하 세크어) 교수△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철민 교수는 발칸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또한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전문성을 무기로 대중에게 발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이야기꾼으로도 활약하며 총횡무진하고 있다. 학문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발칸의 매력을 전파하는 김철민 교수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시기인 1980년대는 냉전의 기운이 감돌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반쪽짜리 대회로 치러졌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이라 불리며 화합의 장이 됐죠. 당시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책을 발표하며 철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변화가 감지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며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북방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전 직감적으로 △동유럽△러시아△중국에 개방되면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지역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미래의 비전을 선점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학교 유고어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전 치열하게 사는 생계형 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역사학이나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상 부모님의 권유로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서 안타깝게 탈락해 진로를 틀어야 했죠. 대학에 입학해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땀과 수석으로 입학해 장학금을 받았고 2학년 때부터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장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공부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학과 행사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체육대회나 MT 등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동기 및 선후배들과 어울렸습니다.

Q3.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3년 반 내내 지냈던 기숙사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엔 PC방이나 컴퓨터 게임이 없던 시절이라 친구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노는 게 일상이었어요. 당구를 칠 줄 몰라 친구들이 수업을 빼먹고 당구장으로 갈 때 전 기숙사에 남아 탁구를 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져온 탁구 실력으로 친구들과 내기해 이기면 그 돈으로 학교 앞 단골 식당에서 맛있는 걸 나눠 먹곤 했죠. 그때 동기들과 땀 흘리고 웃으며 보냈던 시간이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자산이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4. 동유럽 중에서도 특히 발칸 지역 역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 부전공으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매일 변하는 것이라 흥미로웠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온 시기는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인종 청소 등 발칸 지역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이슈를 깊이 파고들고 싶어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 베오그라드(Beograd) 국립대에서 유학하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숲속의 대나무만 봐선 산 전체를 알 수 없듯 발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변 강대국인 △로마 제국△오스만 제국△유럽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유럽 국제관계사 전문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Q5. △벌거벗은 세계사△세계테마기행△14F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셨습니다.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전 27살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제 학문 분야가 특이하다 보니 학문적 희소성 때문에 찾아주신 탓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방송인과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좋았어요. 방송 작가들이 대본을 가져오면 전 그 대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즉석에서 필요한 설명을 보태주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며 어려운 지식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나 흥미를 유발한 뒤 더 깊은 지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학자의 덕목이니까요. 그래서 학내에선 학술 논문을 쓰고 방송을 통해선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5-1. 대학 강연과 방송 활동 사이에서 일정은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방송을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급력이 높은 방송에 자주 나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대중성 있는 방송들이거든요. 시간 배분은 솔직히 대부분 주말에 일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밤에도 일합니다. 다만 전 인생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있어요. 시기별로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죠. 후학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6. △강연△방송△저서를 집필의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업체 임원이나 공무원 대상 특강도 많이 하지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일반 시민 특히 5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입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강의 중에 제가 쉬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물을 떠다 주시기도 하고 사탕을 가져 주시는 등 나름의 방식대로 저를 챙겨주세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혹시 사이트가 있나요?”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인간적 정을 느끼는 일이 훨씬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Q7. 대중에게 꼭 전하고 싶은 발칸 지역의 핵심 가치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발칸(Balkan)’은 튀르키예어로 산맥이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칸은 동로마와 서로마의 교차 지점이자 정교회와 가톨릭의 분리 지점이고 이슬람과 유럽의 끝선입니다. 이러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민족과 문화가 잘게 쪼개져 있고 동로마와 서로마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교차하는 문명의 단층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도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발칸의 보스니아죠. 이에 따라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며 복잡하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발칸의 복잡성을 다채로운 매력으로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섞여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습니다. 대중들이 가진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Q8. 앞으로의 목표 및 계획이 궁금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4~5년 단위로 연구 주제를 바꿔왔어요. 4~5년 전엔 ‘유럽화’란 주제로 연구했고 최근 4~5년엔 ‘지정학’이란 주제로 연구해 왔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책의 주제가 림랜드(Rimland)***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동유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동유럽의 지정학적 운명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과 매우 유사해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인 림랜드에 위치한 동유럽과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완충지대로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역사

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의 점이 아닌 긴 선으로 보면 제국은 반드시 멸망하고 패권은 교체됩니다. 과거 명청 교체기에 조선이 선택의 기로에서 인조반정 이후 잘못된 판단으로 병자호란의 참화를 겪었듯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냉전 시기에 동유럽과 한반도는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동유럽의 위기가 나비효과처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역사적 통찰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후배들과 동유럽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유럽△발칸△중부 유럽은 우리나라가 유럽에 진출하는 데 있어 철저히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기업이 동유럽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요.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과 위험을 줄이는 것이예요. 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급증하며 생산 기지가 조금씩 발칸 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보면 이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유럽을 단순히 여행을 가고 놀고먹기 위한 장소로 생각에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산 기지이자 유럽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이예요. 동유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우리학교밖에 없기에 후배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준비한다면 미래가 탄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업들이 동유럽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인력은 동유럽 전문가들이고 이러한 인재를 배출하는 곳은 우리학교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소련의 경제·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 한 정책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부 활동을 공개하고 사회 전반의 표현·정보 자유를 확대하려 한 개방 정책

***림랜드(Rimland):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해안지역으로 세계 지배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는 스파이크먼(Spykman)의 지정학 이론.